

# 광주 아파트 입주경기 '깜깜'

'거래절벽' 현상에 4월 입주경기실사지수 64.9...4.8P 하락  
광주 54.1로 전국 최하위...광주·전라권 입주율 평균 밀돌아

코로나19 사태로 광주지역 부동산시장에 '거래절벽' 현상이 이어지면서 입주경기 역시 먹구름이 드리운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거래가 끊기자 기존 가지고 있던 집이 팔리지 않아 입주율도 하락하는 등 지역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분위기다.

16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4월 전국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전망치는 64.9으로 전달(69.7)보다 4.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HOSI는 공급자 입장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중에 있는 단지의 입주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매월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며,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입주경기가 긍정적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그 이하면 반대를 뜻한다.

이달 HOSI를 보면 광주는 전월보다 1.9포인트 하락한 54.1로 경남(54.1)과 함께 전국 평균

을 크게 밀도는 것은 물론,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광주지역 HOSI는 코로나19 여파가 나타나기 전인 지난 2월 95.6을 기록한 뒤 연달아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지역별 HOSI는 울산(76.4), 세종(76.1), 경북(75.0), 전북(73.6), 서울(73.3), 충남(72.2)이 70선을 기록한 반면, 전남(58.8), 제주(57.8), 부산(56.6), 대구(56.6) 등은 50선을 기록했다. 대구는 조사 이래 처음으로 50선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4월 전망치가 하락했다는 게 주산연의 설명이다.

또 지난 3월 전국 HOSI 실적치도 54.2로, 조사 이래 최저를 기록했다.

광주는 66.6을 나타냈으나, 전남은 42.1로 전국 평균을 크게 밀돌았다.

주택사업자의 입주경기 체감경이값도 지난 3

월 54.2로 전달 대비 8.4포인트 떨어지면서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지난달 입주율 역시 74.4%를 나타내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째 하락세를 보이는 등 입주경기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같은 기간 광주·전라권 입주율은 72.1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또 지난 1월 76.3%→2월 74.3%→이달 72.1%로 매달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처럼 입주율이 떨어지는 이유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부동산 거래가 뜰 뿐 아니라 '기존의 주택매각 지연'(52.1%)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세입자 미확보'(28.2%), '잔금대출 미확보'(8.5%) 등 순이었다.

주산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기존 주택매각이 어려워짐에 따라 미입주와 입주 지연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일시적 가구 주택 유예기간 등 미입주 리스크를 경감할 수 있는 정책보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교통·교육·의료 등 생활인프라 탁월



### 여수 대광로제비앙 센텀29 363세대 27일부터 특별공급

여수 신기동 대광로제비앙 센텀29는 주택전시관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광로제비앙 센텀29는 여수 최고입지를 자랑 하는 신기동 최고 29층 랜드마크 등도 가까이 순천, 광양 등 인근 도시와 서울 등 수도권도 편하게 오갈 수 있다.

단지 앞에는 고락산 등산로가 마련돼 비봉산, 망마산, 망마경기장, 거북선공원 등 쾌적한 자연·레저환경도 누릴 수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신기동 대광로제비앙 센텀29'는 오는 27일 특별공급 청약을 앞두고 있으며, 28일 일반공급 1순위, 29일 2순위를 진행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는 5월 8일, 사전서류제출 기간은 5월 11~16일, 계약기간은 5월 19~21일까지다.

주택전시관은 홈페이지(<http://신기동대광로제비앙.com>)를 통한 사전예약 후 관람이 가능하며, 웅천동 1868-1에 마련돼 있다. 분양문의 1600-5535.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외국인이 보유한 대한민국 땅 '여의도 86배'

1년 새 728만㎡ 3.0% ↑ ... 248.7km<sup>2</sup>  
미국인 52.2% 중국인 7.8% 보유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국내 토지가 전년보다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전년 대비 3.0%(728만㎡) 증가한 248.7km<sup>2</sup>로 나타났다.

이는 전 국토 면적(10만378km<sup>2</sup>)의 0.2%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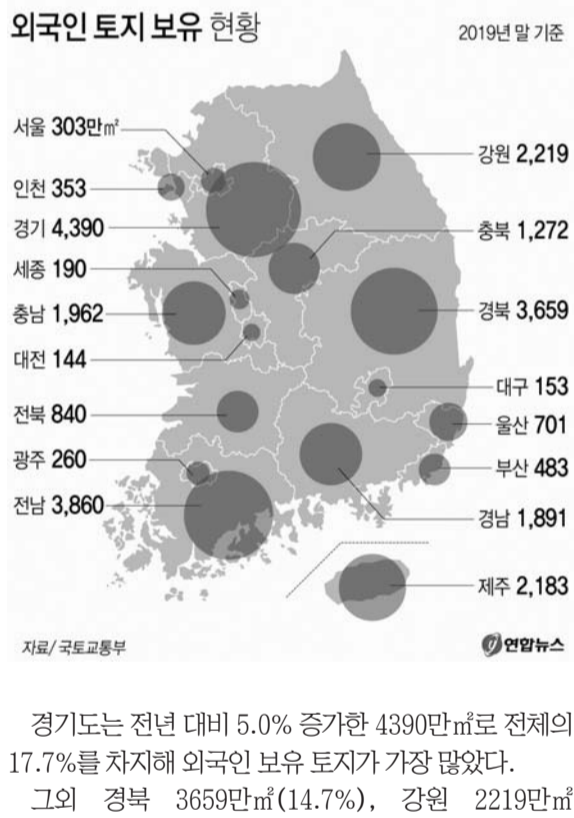
외국인 보유 토지는 공시지가로 보면 30조7758억원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늘어난 외국인 보유 토지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2.5배 수준이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는 2014~2015년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에 증가율이 크게 둔화한 후 현재까지 1~3% 선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국적자 보유 토지는 전년 대비 3.4% 늘어난 1억 2981만㎡로, 전체 외국인 토지의 52.2%를 차지하고 있다.

뒤이어 중국 7.8%, 일본 7.5%, 유럽 7.2%, 순이다.

외국인 보유 토지를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3863만㎡(15.5%)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면적이 컸다.



(8.9%), 제주 2183만㎡(8.8%) 순으로 외국인 보유 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208만㎡·5.0%), 강원(112만㎡·5.3%), 경남(87만㎡·4.8%) 등지는 전년 대비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이 증가했으나 충북(12만㎡·0.9%) 등지는 줄었다.

임야와 농지 등이 전년 대비 4.7% 증가한 1억6365만㎡(65.8%)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77만㎡(23.6%), 레저용 1190만㎡(4.8%), 주거용 1030만㎡(4.2%), 상업용 405만㎡(1.6%) 순이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3832만㎡(55.6%)로 가장 비중이 컸다. 합작법인 7116만㎡(28.6%), 순수외국법인 1878만㎡(7.6%), 순수외국인 1985만㎡(8.0%), 정부·단체 55만㎡(0.2%)이 뒤를 이었다.

한편, 제주도의 외국인 보유 토지는 전년 대비 0.7% 증가한 2183만㎡로 집계됐다. 외국인 토지의 공시지가는 1.8% 늘어난 5646억원이었다.

외국인 토지는 제주 전체면적의 1.18%로, 중국(927만㎡·42.5%), 미국(414만㎡·19.0%), 일본(238만㎡·10.9%) 순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보유 토지는 927만㎡로, 전년에 비해 3.6% 줄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캠코, 국유재산 임대료 인하 신청 500명 돌파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하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16일 캠코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국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 이후 누적 신청자가 500명을 돌파하고 신청금액은 13억원에 달한다.

캠코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인하 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준 2.5~5%인 임대료율을 1%로 인하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국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은 최대 2000만원까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캠코는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만8000여명에게 문자와 우편으로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와 협업체 임대료 인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캠코 관계자는 "국유재산 임대료 인하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